https://doi.org/10.5392/JKCA.2017.17.12.545

좋은 국가, 그곳에서 살고 싶다! : Q방법론을 활용하여

Good Government, I want to Live in there : Using the Q-methodology

이도희*, 유영설**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Doh-Hee Lee(2dohee@hanmail.net)*, Young-Seol Yu(yssports4u@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가 새로운 통치자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소위 '나라다운 나라'를 지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과연 그 '나라다운 나라', '좋은 나라', '좋은 국가'는 어떠한 것일까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 일상에서 회자하고 있는 '좋은 나라', '좋은 국가'에 대한 진술과 연구를 바탕으로 '좋은 국가'에 대한 연상 진술문을 수집하여 '좋은 국가'에 대한 인식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좋은 국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유형 Ⅰ>은「신뢰하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고, <유형 Ⅱ>는 「일할 수 있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Ⅲ>은 「자녀를 위한 국가형」으로, <유형 Ⅳ>는 「행복한 국가형」으로 명명하였고, <유형 Ⅴ>는 「살맛나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5개의 유형별로는 좋은 국가에 대한 인식은 연령 및 직업에 따른 큰 차이가 없고, 국민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좋은 국가에 대한 인식임을 알 수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정권교체라는 격동의 시기에서 새로운 정부를 맞게 되면서 우리의 '국가'에 대한 이해와 그 존재의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의 존재의 의미와 '좋은 국가'에 대한 갈망과 기대를 되새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좋은 국가 | 주관성연구 | Q방법론 |

Abstract

In this study, as Korea's new government began, the voice of the so-called "real country" has increased, and what has been said about the "good country" and "good government". Therefore, based on the statements and researches on 'good country' and 'good government' that we talk about in our daily life, we collected associative statements about 'good country'. As a result of analysis, we classified the 'good countries' into 5 types as follows. <Type Ⅰ> is named "Trusted State Type" and <Type Ⅱ> is named "Workable State Type". <Type Ⅲ> is called "national type for children," <type Ⅳ> is named "happy national type," and <type Ⅴ> is named "living typ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good countries according to age and occup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Republic of Korea is forced to rethink its understanding of our "state" and the reason for its existence as a new government is introduced in a period of turbulence called regime change. This study intends to give meaning to the meaning of existence of 'Government' and opportunity to recall the desire and expectation of 'Good Government'

■ keyword : | Good Government | Subjective Study | Q methodology |

접수일자 : 2017년 08월 17일
수정일자 : 2017년 09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9월 27일
교신저자 : 유영설, e-mail : yssports4u@hanmail.net

I. 서 론

대한민국헌법(개정 1987.10.29.) 제1조에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통치형태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바로 국가의 권위란 군주의 통치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치자의 일반의지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1]. 루소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 자체이며, 국가의 통치를 위한 법이란 다름 아닌 전체 국민의 의지라고 표현하였다. 이렇듯 루소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국가를 최고선의 실현형태이며, 현실문명의 나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본래 선한 존재이며 따라서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다[3][6]. 개인들이 각자의 목적을 추구하다 보면 공동체 내에 반목이 야기되므로 공동선(共同善)이 사회공동체의 진정한 목표로 인식될 때에만 건전한 국가가 성립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1][2][5].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가 새로운 통치자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소위 '나라다운 나라'를 지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1] 과연 '나라다운 나라', '좋은 나라', '좋은 국가'에 대하여 회자되면서 '좋은 국가' 에 대한 의문과 인식의 진단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즉, 국가란 무엇이고, 좋은 국가란 어떤 국가일까.

인간사회의 한 형태인 국가는 그 목적이 질서와 안전의 확립이라는 점, 유지수단이 법규범과 그것의 적용이라는 점, 영토가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주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조직과 구별된다[2]. 대개 국가는 '법'이라는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개인들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더 큰 단위 즉 연방의 권위에 종속되는 주권이 없는 통치단위를 가리키기도 한다[2][3].

국가의 역사는 서유럽에서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를 정치·경제·종교·문화에 대한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사회형태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급자족을 주요특성으로 하는 도시국가를 인간이 도덕성을 함양해가는 터전이라고 생각했다[1]. 즉, 국가는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회적 제가치의 권위적 배분작용기능을 위하여 그 조직과 작용은 법에 의해서만 규제된다. 또한, 국가의 기능은 본래적 기능과 부차적으로 구분된다. 본래적 기능은 밖으로 외적인 개입을 방법하고, 안으로는 치안을 확보하여 구성원들에게 안녕과 질서를 유지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부수적인 기능으로는 국가사회 문화의 형성유지, 발전 및 모든 국민의 복리를 최대한 증진시키는데 있다[5]. Bentham은 '국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확보'가 현대국가의 지도원리임을 주장하였다[4].

본 연구는 최근 새정권에 들어서서 오르내리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의 목소리에 맞추어서[6][7], '좋은 나라', '좋은 국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일상에서의 나라에 대한 진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좋은 국가' 및 '좋은 나라'에 대한 연상되는 진술문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진술문을 바탕으로 인식의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일련의 유형화는 'Q방법'이라 하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는 사회적 또는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는 독특한 방법론적 연구전통에 기반하여 이해해야 하는 연구과정이다. 연구자는 복합적이

1) 文 "혼신 다해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통합 대통령 되겠다"(연합뉴스, 2017. 5. 10).

고 전체적인 그림을 구축하고, 그에 관련된 언어를 분석하며, 정보제공자들의 구체적인 시각과 사고를 보고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8][9]. 또한, 질적연구는 현실세계, 사회현상, 사물, 인물 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보여 지고 듣게 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과 언어들을 재구성하여 그 본질적 속성을 밝히는 해석적 패러다임으로써 방법(method)이상의 방법론(methodology)이다[10][11]. 특히, 다양한 사회과학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12-15] 있는 Q방법론은, 계량연구 이전에 가설발견적 접근방법(abductive approach)로 활용가능한 연구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21세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나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고찰하고자 주관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론정립을 위해서는 가설검증 등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계량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II. 선행연구와 Q방법론의 이해

1. 선행연구 검토

국가 및 좋은 국가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져왔다. 즉, 21세기에 되어서야 국민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지면서 구성원인 국민스스로가 국가에 대한 진단차원에서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하겠다[12-14].

정규현[16]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이런나라'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세대를 거친 이후에 발전된 여건과 환경 하에 복지국가로써의 면모를 강조하였다. 한편, 최창현[17]은 '좋은 정부'는 첫째, 효율성 특히,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정부의 복잡성 관리를 위한 '분권화'이다. 셋째, 정부는 정책과 법을 집행할 때 편협해서는 안된다는 '불편부당성'을 전제한 '책임성'이다. 더불어 좋은 정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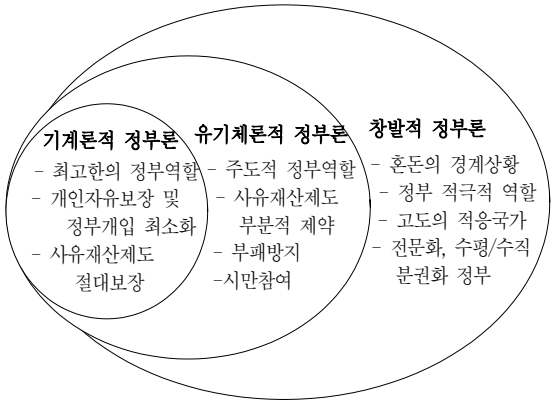


그림 1. 좋은 정부의 의미[18]

[그림 1]에서와 같이, 21세기의 '좋은 정부'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적응가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수평적 및 수직적 분권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어느 상황에서도 대응가능한 '창발적 정부'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덕로 · 송기형 · 홍영식[17]은 '좋은 정부'가 갖추어야 할 핵심요소로서 '신뢰', '공정성'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로써의 '자유', '평등', '민주주의'임을 강조하였다.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국가로의 자유'로 구분하였고, '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공정한 기회의 조건 아래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유와 평등과 함께 논의되는 '다수의 지배'인 '민주주의'이다. 다수의 누구에게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Q방법론의 이해

Q방법론은 Stephenson에 의해 1935년 Nature에 방법론적 가능성이 발표된 이후, 인간의 주관성 즉, 인간의 심리적 · 내면적 특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 논의되어왔다. Q방법론에 깔려있는 논리는 마치 어두운 방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으로 종종 비유되고 있다. 우리는 그 빛이 닿는 곳을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방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미리 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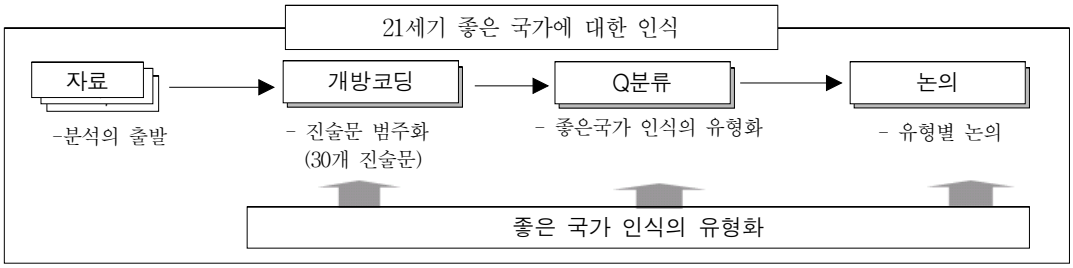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놓는 조작적(operational)개념에서가 아니라, 단지 빛이 비추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로써 Q방법론은 과학적 발견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19][20].

Stephenson에게 보이지 않는 이벤트의 탐구에 있어 환원주의(reductionism), 논리실증주의나 가설연역적 접근방법은 처음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벤트를 연구자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범주적, 판별적, 상호배타적 구조 속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Stephenson은 환원주의를 연역적 추론의 한 방법론으로 주어진 이론과 가설 혹은 문제에 대한 연역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검증하려는 논리로 보았고, 이로써 가설은 사실(fact)의 연합체가 된다는 것이다[21][23].

기존 방법론은 연역과 귀납을 이용하여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만들어 이를 검증하는 이른바 가설연역적(hypothetic-deductive)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Q방법론은 관찰을 통해 가설을 만들어 낸다. 즉, 기존의 R방법론(Pearson Correlation의 "R"에서 유래함)이 '가설로부터 시작하는 논리(reasoning from the hypothesis)'라고 한다면, Q방법론은 '가설로 향하는 논리(reasoning to the hypothesis)' 또는 '가설발견'의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abduction'은 가설연역의 방법보다 선행해야 한다[24][25].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기에 앞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하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26].

Simon과 Paul(2012)는 R방법을 '변인에 의한 요인분석'으로, Q방법을 '사람에 의한 요인분석'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Q방법론에 의한 데이터는 테스트의 모집단 또는 표본이 개개인의 집합에 의해 상대적으로 측정되거나 척도를 부여받을 때 도출된다. 즉, R방법론이 수동적으로 측정에 종속되는 대신에, Q방법론 연구에서의 참여자는 능동적으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이질적 자극항목의 모음 또는 Q표본을 사용한다. Q는 매우 탁월하고 효과적인 방법론 체계이다[27].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21세기에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국가는 과연 어떠한 국가인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좋은 국가'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하여 모집단을 확보하고, 최종 [표 2]와 같은 좋은 국가에 대한 진술문 30개를 확보하여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일련의 과정은 [그림 2]과 같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Q분류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으로 하였으며, 소표본 이론에 근거하여 36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P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명)
성별	남자	18
	여자	18
직업	대학생	7
	관리직	8
	사무직	10
	교사	9
	기타	2
계		36

3. Q분석과정

1) Q모집단과 Q표본 선정

확보된 Q모집단은 코딩(coding)과정[1]을 거치면서 대표성 있는 Q표본(Q-sample) 총 30개의 진술문을 선정한 결과, [표 2]와 같다.

표 2. Q표본

1. 살맛난다는 느낌이 드는 국가
2. 상식이 통하는 국가
3. 공정함과 평등함을 추구하려는 국가
4. 젊은 사람들이 살맛나는 국가
5.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국가
6. 노력한 만큼 대우 받는 국가
7.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8. 차별없는 국가
9.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
10. 내일이 기다려지며 살 수 있는 국가
11.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국가
12. 정치를 몰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
13. 그냥 먹고 사는 것이 편한 국가
14.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국가
15.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
16. 뜻한 바를 언제든 펼칠 수 있는 국가
17. 국민에게 투명한 국가
18.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국가
19.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국가
20.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의 국가
21. 방송 접하는 것이 즐거운 국가
22. 월급을 만족하는 국가
23. 밤길이 무섭지 않은 국가
24. 하는 일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국가
25. 자녀를 더 낳고 싶은 국가
26.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국가
27. 국가의 하는 일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
28. 출근길이 편안한 국가
29. 정치인을 좋아하는 국가
30.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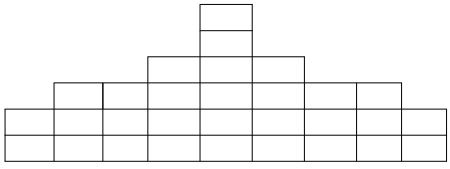
2) P표본

선정된 Q표본 30개의 좋은 국가와 관련한 진술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유형이 어떠한지를 찾아내기 위한 문항 분류의 주체인 P표본을 선정하였다. P표본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계층과 직종의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2]

1) 질적연구에서의 코딩(coding)은 분석의 출발이다[28].

3) Q분류

Q분류(Q-sort)는 [그림 3]과 같이 분포틀에 맞추어 분류하도록 하였다. 분포틀은 좌우대칭적이며, 정상분포와 유사하다. 또한, Q분류 과정은 강제적 분류(forced distribution)라는 Q방법의 특성이자 응답자에게 있어서는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즉, 응답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분류표에 강제적으로 분류해 넣도록 요구받는다. 이 작업은 R방법론에서 수행하는 설문조사보다 매우 주관적이고 복잡하다[17].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중간 수준					매우 그렇다
입력점수	1	2	3	4	5	6	7	8	9
카드수	2	3	3	4	6	4	3	3	2

그림 3. Q-sort와 점수구성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고자 성별 및 연령, 직업, 국가만족도 및 향후 국가에 대한 기대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는 Q분석결과, 각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P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증연구를 위한 가설설계를 위한 응답자의 특성분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개별응답지를 바탕으로 txt파일에 Q분류 결과를 코딩(cording)하였으며,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에 있어서는 고유값(eigen-value)이 1.00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유형에 따른 분석은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의 개별응답지를 중심으로 분석하므로서 유형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P표본의 수는 Q표본의 수와 비슷해서 보통 40±20명 정도가 일반적이나, 그 수가 100명이 넘어가면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20].

Ⅳ. 분석결과

1. 유형화 결과

[표 3]은 각 유형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유형 Ⅰ>은 30.33%, <유형Ⅱ>는 7.79%, <유형 Ⅲ>은 5.92% <유형 Ⅳ>는 5.42%로 <유형Ⅴ>는 4.17%로 전체 53.6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4]는 유형별 응답자의 인자가중치와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유형별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Ⅱ>만이 모두 20대의 젊은 연령으로 구성되어있는 반면에, 다른 유형들은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유형별 설명력

구분	유형Ⅰ (신뢰하는 국가형)	유형Ⅱ (일할수 있는 국가형)	유형Ⅲ (자녀를 위한 국가형)	유형Ⅳ (행복한 국가형)	유형Ⅴ (살맛나는 국가형)
Eigenvalues	10.9200	2.8031	2.1327	1.9511	1.5006
변량 %	0.3033	0.0779	0.0592	0.0542	0.0417
누적변량 %	0.3033	0.3812	0.4404	0.4946	0.5363

표 4. P표본의 인자가중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유형	인자가중치	연령	성별	직업	국가만족	향후기대	이름
유형Ⅰ (신뢰하는 국가형)	1.9438	26	남	대학생	만족	잘될것	김0형
	1.5674	32	여	교사	만족안함	힘들어짐	김리0
	1.4473	27	여	교사	만족안함	잘될것	최경0
	1.2539	50	여	상담사	만족안함	잘될것	백선0
	1.2496	27	여	회사원	만족안함	잘될것	박0경
	.9533	44	남	교사	만족	잘될것	유0설
	.8282	28	여	일반사무직	만족안함	잘될것	전민0
	.7225	28	남	일반사무직	만족안함	잘될것	송0철
	.6010	41	여	일반사무직	만족안함	잘될것	황0경
유형Ⅱ (일할 수 있는 국가형)	1.4441	22	남	대학생	만족	잘될것	박0현
	1.0302	25	여	교사	만족안함	힘들어짐	박0은
	1.0087	22	남	대학생	만족	힘들어짐	이원0
	.7390	28	여	교사	만족안함	잘될것	유서0
유형Ⅲ (자녀를 위한 국가형)	1.1562	28	남	일반사무직	만족안함	힘들어짐	김0주
	1.0331	36	남	일반사무직	만족	잘될것	최우0
	1.0088	27	남	일반사무직	만족	잘될것	이현0
	0.6231	25	여	일반사무직	만족	함들어짐	박0영
	0.4975	43	여	관리직	만족안함	잘될것	장0련
유형Ⅳ (행복한 국가형)	1.1377	39	남	관리직	만족안함	잘될것	김남0
	1.1241	21	여	대학생	만족	잘될것	엄지0
	1.0391	24	여	교사	만족안함	잘될것	박0연
	.9119	28	여	교사	만족안함	잘될것	최0진
	.7464	51	여	일반사무직	만족	잘될것	최0정
	.4568	33	여	교사	만족안함	잘될것	곽미0
	.4427	22	남	대학생	만족안함	잘될것	오현0
	.4389	24	여	일반사무직	만족	잘될것	김0진
유형Ⅴ (살맛나는 국가형)	1.9762	48	여	교사	만족	잘될것	박윤0
	1.4335	38	남	관리직	만족	잘될것	김0오
	1.2173	45	남	관리직	만족안함	잘될것	박0규
	1.0894	44	남	관리직	만족안함	잘될것	김0훈
	1.0489	40	남	관리직	만족	잘될것	정진0
	.7075	23	남	대학생	만족안함	잘될것	신병0
	.6441	38	남	관리직	만족	잘될것	김0성
	.4863	23	여	일반사무직	만족안함	잘될것	유0은
	.3539	23	남	대학생	만족	잘될것	김0한
	.2603	56	남	사무관리직	만족안함	힘들것	김0진

[표 5]는 각 유형별 진술문의 표준점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유형 Ⅰ>은 '국가가 하는 일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가장 높은 표준점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신뢰하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Ⅱ>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국가'가 가장 강조되고 있어 「일할 수 있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Ⅲ>은 '자녀를 낳고 싶은 국가'가 강조되고 있어, 「자녀를 위한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유형 Ⅳ>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나는 국가'를 강조하고 있어「행복한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Ⅴ>는 '살맛난다는 느낌이 나는 국가'를 강조하고 있어 「살맛나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6]는 유형간 상관관계로 <유형Ⅱ>「일할 수 있는 국가형」이 다른 유형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형 Ⅰ>과 <유형Ⅴ>는 다른 유형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유형별 표준점수 분포

진술문	유형Ⅰ (신뢰하는 국가형)	유형Ⅱ (일할수 있는 국가형)	유형Ⅲ (자녀를 위한 국가형)	유형Ⅳ (행복한 국가형)	유형Ⅴ (살맛나는 국가형)
1.살맛난다는 느낌이 드는 국가	0.2	0.6	0.7	1.6	**1.8**
2.상식이 통하는 국가	0.9	−0.2	−0.2	0.1	1.2
3.공정함과 평등함을 추구하려는 국가	1.5	−0.2	0.1	0.4	1.5
4.젊은 사람이들이 살맛나는 국가	−0.5	0.5	−0.1	−0.9	−0.3
5.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국가	0.3	1.4	1.2	−1.0	0.3
6.노력한 만큼 대우 받는 국가	1.0	0.4	0.7	0.2	1.0
7.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1.6	0.4	1.8	**1.7**	1.3
8.차별없는 국가	0.2	−0.9	−0.3	−0.0	0.4
9.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	0.7	−0.2	1.8	0.2	1.0
10.내일이 기다려지며 살 수 있는 국가	−0.7	0.9	−0.4	1.1	0.7
11.서로가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국가	1.4	−0.1	−1.3	0.6	−0.2
12.정치를 몰라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국가	−0.3	−1.0	−0.6	−2.1	0.3
13.그냥 먹고 사는게 편한 국가	−1.4	1.3	−0.7	−1.6	−1.6
14.오래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국가	−1.3	−0.0	0.4	0.1	−0.1
15.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	0.0	0.7	−0.4	0.5	0.9
16.뜻한바를 언제든 펼칠수있는 국가	0.3	1.2	−0.1	0.4	0.1
17.국민에게 투명한 국가	1.0	−0.6	0.8	1.0	0.3
18.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국가	−0.0	**1.7**	−0.6	0.4	0.4
19.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국가	0.8	−0.3	−0.2	−0.2	0.8
20.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의 국가	−0.1	0.8	−0.6	0.8	−1.0
21.방송보는 것이 즐거운 국가	−1.5	−2.0	−1.7	−2.0	−1.4
22.월급을 만족하는 국가	−0.4	1.6	0.1	−1.5	−2.2
23.밤길이 무섭지 않은 국가	−0.5	−0.9	−1.1	−0.1	−0.9
24.하는 일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국가	0.3	0.2	0.3	1.3	0.1
25.자녀를 더 낳고 싶은 국가	−1.2	0.1	**2.3**	−0.4	0.2
26.다른나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국가	−1.7	−1.1	−1.0	−0.0	−1.0
27.국가의 하는 일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	**1.9**	−0.6	0.9	1.1	0.3
28.출근길이 편안한 국가	−1.7	0.3	−2.0	−0.5	−1.0
29.정치인을 좋아하는 국가	−1.2	−2.0	−0.6	−1.4	−1.4
30.대통령을 좋아하는 국가	0.4	−1.9	0.9	0.0	−1.4

표 6. 유형간 상관관계

구분	유형 I (신뢰하는 국가형)	유형 II (일할 수 있는 국가형)	유형III (자녀를 위한 국가형)	유형IV (행복한 국가형)	유형 V (살맛나는 국가형)
유형 I	1	.072	442	.554	.615
유형 II		1	.152	.201	.180
유형III			1	.350	.463
유형IV				1	.601
유형V					1

2. 유형별 특성

1) 〈유형 Ⅰ〉, 신뢰하는 국가형

<유형 Ⅰ>에서는 '국가의 하는 일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공정함과 평등함을 추구하려는 국가',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국가' 등의 진술문을 강조하고 있어, 「신뢰하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표 7].

표 7. 〈유형 Ⅰ〉, 신뢰하는 국가형 분포

Q-표본	표준점수
• **국가의 하는 일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	1.86
•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1.61
• 공정함과 평등함을 추구하려는 국가	1.47
•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국가	1.36
• 오래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국가	−1.33
• 그냥 먹고 사는게 편한 국가	−1.40
• 방송보는 것이 즐거운 국가	−1.46
• 출근길이 편안한 국가	−1.66
• 다른나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국가	−1.73

2) 〈유형 Ⅱ〉, 일할 수 있는 국가형

<유형 Ⅱ>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국가'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월급을 만족하는 국가',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국가', '그냥 먹고 사는 게 편한 국가' 등의 지극히 현실적인 진술문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 Ⅱ>를 「일할 수 있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표 8].

표 8. 〈유형 Ⅱ〉, 일할 수 있는 국가형 분포

Q-표본	표준점수
•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국가**	1.70
• 월급을 만족하는 국가	1.64
•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국가	1.37
• 그냥 먹고 사는게 편한 국가	1.33
• 뜻하는 바를 언제든 펼칠 수 있는 국가	1.15
• 정치를 몰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	−1.03
• 다른나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국가	−1.10
•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가	−1.87
• 정치인을 좋아하는 국가	−2.01
• 방송보는 것이 즐거운 국가	−2.03

3) 〈유형 Ⅲ〉, 자녀를 위한 국가형

<유형 Ⅲ>에서는 '자녀를 더 낳고 싶은 국가'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국가' 등의 진술문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 Ⅲ>를 「자녀를 위한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표 9].

표 9. 〈유형 Ⅲ〉, 자녀를 위한 국가형 분포

Q-표본	표준점수
• **자녀를 더 낳고 싶은 국가**	2.27
•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	1.80
•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1.79
•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국가	1.24
• 밤길이 무섭지 않는 국가	−1.14
•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국가	−1.31
• 방송보는 것이 즐거운 국가	−1.72
• 출근길이 편안한 국가	−2.04

4) 〈유형 Ⅳ〉, 행복한 국가형

<유형 Ⅳ>에서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살맛난다는 느낌이 드는 국가', '하는 일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국가' 등의 진술문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 Ⅳ>를 「행복한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표 10].

표 10. 〈유형 Ⅳ〉, 행복한 국가형 분포

Q-표본	표준점수
•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1.70
• 살맛난다는 느낌이 드는 국가	1.64
• 하는 일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국가	1.35
• 국가의 하는 일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	1.15
• 내일이 기다려지며 살 수 있는 국가	1.15
• 정치인을 좋아하는 국가	−1.37
• 월급을 만족하는 국가	−1.50
• 그냥 먹고 사는게 편한 국가	−1.60
• 방송보는 것이 즐거운 국가	−2.01
• 정치를 몰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	−2.06

5) 〈유형 Ⅴ〉, 살맛나는 국가형

<유형 Ⅴ>에서는 '살맛난다는 느낌이 드는 국가'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정함과 평등함을 추구하려는 국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상식이 통하는 국가' 등의 진술문을 강조하고 있다. <유형 Ⅴ>를 「살맛나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표 11].

표 11. 〈유형 Ⅳ〉, 행복한 국가형 분포

Q-표본	표준점수
• **살맛난다는 느낌이 드는 국가**	1.76
• 공정함과 평등함을 추구하려는 국가	1.52
•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1.31
• 상식이 통하는 국가	1.17
•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가	−1.36
• 방송보는 것이 즐거운 국가	−1.39
• 정치인을 좋아하는 국가	−1.44
• 그냥 먹고 사는게 편한 국가	−1.60
• 월급을 만족하는 국가	−2.18

3. '좋은 국가' 에 대한 유형별 논의

본 연구는 21세기 격변하는 사회환경 및 정치문화환경 하에서, 특히나 새정권이 수립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면서 과연 '좋은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일상에서 느끼는 좋은 국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집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술문 30개를 확보하고, 이들 진술문을 바탕으로 유형화를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각 유형별 좋은 국가에 대한 진술문 분포를 앞서 살펴보았고, 추가적으로 각 유형별로 인자가중치가 높은(영향력 있는) 응답자의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결과 다음과 같다.

<유형 1, 신뢰하는 국가형>을 설명하고 있는 P표본 진술의 일부이다.

> ***(인자가중치, 1.9438, 26세, 남, 대학생, 김0형)***
> 9점 : 「국가의 하는 일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국가」
>
> "좋은 국가라면, 누구든 국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 분열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좋은 국가가 되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인자가중치, 1.5674, 32세, 여, 교사, 김0나)***
> 9점 : 「국가의 하는 일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정함과 평등함을 추구하려는 국가」
>
>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믿고 맡은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의 국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연고를 따지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이상과 같이 <유형 1, 신뢰하는 국가형>의 인자가중치가 강조된 응답자의 의견을 보면, 좋은 국가는 국민이 국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국가가 하는 일이 공정함과 평등함을 추구할 때, 바로 좋은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유형 2>를 설명하고 있는 P표본 진술의 일부이다.

(인자가중치, 1.4441, 22세, 남, 대학생, 박0현)
9점 :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국가」,
「노력한 만큼 대우 받는 국가」

"평등은 기회의 평등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뭐든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있는 그런 국가야 말로 우리가 찾는 국가라 생각한다. 또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자가중치, 10302, 23세, 여, 교사, 박0은)
9점 : 「월급을 만족하는 국가」,
「젊은 사람들이 살맛나는 국가」

"월급이 많으면, 기업이 버는 돈도 많아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젊은이들이 살맛나면, 경제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 그리고, 연고를 따지지 않고,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유형 2, 일할 수 있는 국가형>의 인자가중치가 강조된 응답자의 의견을 보면, 좋은 국가는 국민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함을 '월급을 만족하는 국가'로 대신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국가', '그냥 먹고 사는 게 편안한 국가' '뜻한 바를 언제든 펼칠 수 있는 국가'로 생존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이 갖추어진 국가가 좋은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유형 3, 자녀를 위한 국가형>을 설명하고 있는 P표본 진술의 일부이다.

(인자가중치, 1.1562, 28세, 남, 사무직, 김0주)
9점 : 「자녀를 더 낳고 싶은 국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과 치솟는 주거비, 주택가격, 교육비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20대, 30대가 증가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좋은 국가는.."

(인자가중치, 1.0331, 36세, 남, 사무직, 최0진)
9점 : 「자녀를 더 낳고 싶은 국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

"저출산 문제 등이 야기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듯하다. 자녀를 더 낳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만이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유형 3, 자녀를 위한 국가형>의 인자가중치가 강조된 응답자의 의견을 보면, '자녀를 더 낳고 싶은 국가'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등의 진술문이 강조되고 있어 본 유형은 복지와 관련한 진술문이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유형 4, 행복한 국가형>를 설명하고 있는 P표본 진술의 일부이다. <유형 4, 행복한 국가형>의 인자가중치가 강조된 응답자의 의견을 보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살맛난다는 느낌이 드는 국가', '내일이 기다려지며 살 수 있는 국가' 등의 진술문이 강조되고 있다.

(인자가중치, 1.1377, 39세, 남, 사무관리, 김0인)
9점 :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살맛나는 느낌이 드는 국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나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이고, 그런 만족은 살맛나는 느낌이야말고 역동성 있는 좋은 국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인자가중치, 1.1241, 21세, 여, 대학생, 엄0선)
9점 :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내일이 기다려지며 살 수 있는 국가」

"행복하면 오늘, 내일이 설레며 기다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국가가 좋은 국가고, 그런 국가의 국민은 행복한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형 5, 살맛나는 국가형>를 설명하고 있는 P표본 진술의 일부이다.

(인자가중치, 1.9762, 48세, 여, 교사, 박0옥)
9점 : 「살맛나는 느낌이 드는 국가」,
「상식이 통하는 국가」

"그 동안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어왔음. 이 나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왔음을 느끼는 국가를 만나고 싶음"

(인자가중치, 1.2173, 45세, 남, 사무관리, 박0규)
9점 : 「살맛나는 느낌이 드는 국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노력한 만큼 보답받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국가일 때 우리는 우리나라가 좋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 즉, 진정으로 살맛나는 그런 국가, 행복한 국가가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라 생각한다"

<유형 5, 살맛나는 국가형>의 인자가중치가 강조된 응답자의 의견을 보면, '살맛난다는 느낌이 드는 국가'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정함과 평등함을 추구하려는 국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상식이 통하는 국가' 등의 진술문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5개의 유형별 강조된 좋은 국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국가', '자녀를 낳고 싶은 국가', '상식이 통하는 국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나는 국가' 그리고 '살맛난다는 느낌이 나는 국가'이다. 즉, 분석결과의 응답자들은 21세기 우리의 국가는 신뢰할 수 있고, 살맛나며, 상식이 통하여, 아이든 어른이든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런 좋은 국가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좋은 국가이기도 하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국가인가를 되짚어보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국가, 바로 그런 국가를 머지않아 만나게 될 것이라, 감히 기대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가 새로운 통치자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소위 '나라다운 나라'를 지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과연 그 '나라다운 나라', '좋은 나라', '좋은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 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 일상에서 회자하고 있는 '좋은 나라', '좋은 국가'에 대한 진술과 선행자료들을 바탕으로 '좋은 국가'에 대한 연상 진술문을 수집하여 '좋은 국가'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q방법이라 하는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좋은 국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30개의 Q표본을 확보하고, 40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Q분류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분석결과 4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좋은 국가에 대한 유형은 5개로 정의되었다. 즉, <유형 Ⅰ>은 30.33%, <유형Ⅱ>는 7.79%, <유형 Ⅲ>은 5.92% <유형 Ⅳ>는 5.42%로 <유형Ⅴ>는 4.17%로 전체 53.6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유형별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유형 Ⅱ>만이 모두 20대의 젊은 연령으로 구성되어있는 반면에, 다른 유형들은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하였다. 둘째, 각 유형별 진술문의 분포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 <유형 Ⅰ>은 '국가가 하는 일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가장 높은 표준점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신뢰하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Ⅱ>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국가'가 가장 강조되고 있어 「일 할 수 있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Ⅲ>은 '자녀를 낳고 싶은 국가'가 강조되고 있어, 「자녀를 위한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Ⅳ>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나는 국가'를 강조하고 있어 「행복한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Ⅴ>는 '살맛난다는 느낌이 나는 국가'를 강조하고 있어 「살맛나는 국가형」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유형간 상관관계로 <유형Ⅱ>「일 할 수 있는 국가형」이 다른 유형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형 Ⅰ>과 <유형 Ⅴ>는 다른 유형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론으로써, 응답자의 즉

홍적이고 일시적인 응답에 근거하기 보다는 응답자의 자아참조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결과에 의하여 도출된 것임을 제고하여,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9점을 부여한 진술문에 대한 이유와 생각을 분석결과에 반영하였다. 즉, <유형 1>의 인자가중치가 강조된 응답자의 의견을 보면, 좋은 국가는 국민이 국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국가가 하는 일이 공정함과 평등함을 추구할 때, 바로 좋은 국가임을 강조하였다. <유형 2>의 인자가중치가 강조된 응답자의 의견을 보면,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함을 '월급을 만족하는 국가'로 대신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는 국가', '그냥 먹고 사는 게 편안한 국가' '뜻한 바를 언제든 펼칠 수 있는 국가'로 생존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이 갖추어진 국가가 좋은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3>의 인자가중치가 강조된 응답자의 의견을 보면, '자녀를 더 낳고 싶은 국가'를 가장 강조하였고, 더불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등의 진술문이 강조되고 있어 본 유형은 복지와 관련한 진술문이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유형 4>의 인자가중치가 강조된 응답자의 의견을 보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살맛난다는 느낌이 드는 국가', '내일이 기다려지며 살 수 있는 국가' 등의 진술문을 강조하였다. <유형 5>의 인자가중치가 강조된 응답자의 의견을 보면, '살맛난다는 느낌이 드는 국가'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정함과 평등함을 추구하려는 국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나게 하는 국가', '상식이 통하는 국가' 등의 진술문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21세기 우리가 원하는 좋은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국가', '자녀를 낳고 싶은 국가', '상식이 통하는 국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나는 국가' 그리고 '살맛난다는 느낌이 나는 국가'이다. 이러한 좋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다음 과정에 무엇을 준비해야할 지에 대하여 향후 연구를 고민해본다. 바로 좋은 국가를 위해서.

참 고 문 헌

[1] 천병희 옮김,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숲, 2013.

[2] 권문규, 천영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행복 프로젝트*, 북랩, 2015.

[3] David Easton, *The Political System.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 New York: Knopf, 1953.

[4] 박대재, *의식과 전쟁: 고대 국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책세상, 2003.

[5] 김계동, 김욱, 민병오 옮김, *정치학개론: 권력과 선택*, 필립스 쉬블리 지음, 명인문화사, 2013

[6] 조우현, *국가*, 플라톤 지음, 올재클래식스, 2013.

[7]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개정신판), 돌베개, 2017.

[8] J. W. Creswell, *Research Desig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Sage. 1994.

[9] 서근원, "질적연구 수행의 의미," 교육학연구, 제46권, 제3호, pp.133-161, 2008.

[10] 김석웅, "회계학 연구방법론으로서의 근거이론에 관한 탐색적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5권, 제3호, pp.77-102, 2007.

[11] 이도희, 이동규, "질적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비영리회계 인식의 가설 발견적 접근," 회계연구, 제12권, 제1호, pp.281-308, 2007.

[12] 강다영, 심형화, "노인의 영명치료에 대한 태도-Q방법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2, pp.355-369, 2015.

[13] 유일, 김소라, 이석인, 이찬영, "Q방법론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10, pp.81-95, 2016.

[14] 이제영, 정미애, "의료정보 광고에 관한 대학생의 주관성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4, pp.36-47, 2017.

[15] 김성태, 진상기, "좋은 정부, 좋은 정책," 제3회의;정책사례 기획논문: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 모색 -공여선진국의 사례분석

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7, No.4, 2007,

[16] 정규현, “한국논단광장 : 우리나라 좋은나라, 우리나라 이런 나라,” 한국논단, Vol.244, pp.186-187, 2010.

[17] 이덕로, 송기형, 홍영식, “좋은 정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9권, 제1호, pp.27-52, 2017.

[18] 최창현, “좋은 정부에 대한 소고,” 기획논단, 한국행정포럼, 제151호, pp.27-35, 2015.

[19] Keith P. Sanders, “William Stephenson : The Study of His Behavior,” Mass Comm Review, Vol.2, pp.9-16, 1974.

[20] 김흥규, “주관성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논문집, 제6권, 제1호, pp.1-11, 1992.

[21] 김흥규, *Q방법론: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션북스(주), 2008.

[22] W. Stephenson, “Concourse theory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제3권, 제1호, pp.21-40, 1978.

[23] 임채형, *광고디자인 표현유형에 따른 실버세대의 수용태도 분석연구 : Q 방법론을 적용한 인쇄매체 주류광고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4] R. S. Brown, *Political Subjectivity,* New Haven. Mass: Yale University Press. 1997.

[25] 김헌수, 원유미, *Q방법론*, 교육과학사, 2000.

[26] 김흥규, “Q방법론의 과학정신탐구,” 공주대학교 미발간 특강자료(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언론학보 제13집, 1994, 5-44 인용), 2003.

[27] 백평구 옮김, *Q방법론 연구의 실행:이론・방법・해석,* Simaon Wattes & Paul Stenner,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28] M. Miles and M. Huberman,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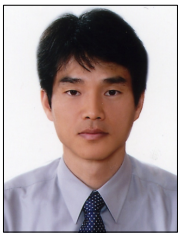
저 자 소 개

이 도 희(Doh-Hee Lee) 정회원

▪ 2017년 9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전공분야> : 경영학(관리회계), 사회복지학, 법학

유 영 설(Young-Seol Yu) 정회원



▪ 2017년 9월 :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전공분야> : 체육행정/경영, 육상경기